

防産 기술협력위원회 출범

실질적 협력기반 구축의 첫 걸음



기술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한 가운데, 기술협력위원회의 출범을 알리는 제1차 회의가 産·研·官 관계인 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1일 防振會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鄭秀烈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미국측과 기술협력 증대를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해왔으나, 미국측의 제안에 대해 우리측은 이를 수용할 기구가 없으므로, 대책 마련에 미흡해 왔었다고 지적하면서, 防産의 재도약에 一助하겠다는 취지에서 오늘의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 鄭秀烈 防振會 부회장은 「어떤 것을 획득할 것인가」하는 사항은 국방부측의 결정 사항이라 할수 있겠지만,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하는 점은 방산기술협력위원회에서 협의할 대상임을 언급하면서, 기술협력위원회는 기술이전을 위한 우리측의 자체적인 창구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아직까지 기술협력위원회는 세부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지만, 미국방위준비 협회나 프랑스 방산관련협회등과의 협력추진시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국방부의 무기체계 획득계획과 국과연의 연구개발중점목표에 따라 정부측 및 업체의 개발품목을 확인함으로써, 방향설정이 가능해질 것이며, 외국과의 기술협력을 위해서는 우리의 기술목표에 따른 요구기술목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협력위원회 구성에 대한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 하였으며, 기술협력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강화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전력증강계획등에 관한 정부와 업체간의 정보共有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미국 MTI社의 앞카리안 회장의 기술제안과 관련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泰)

防産업계 임원 動靜



두원중공업은 최근 열린 주주총회에서 申浩一 사장 후임으로 金相鳳 부사장을 선임하였다

金相鳳 사장

- 1931년 평북 평양 出生
- 1965년 단국대 법대졸업
- 1979년 조달본부 관리과장
- 1981년 육군 대령 전역
- 1981년 대동중공업 서울사무소장
- 1991년 두원중공업 부사장



업무지침 改正에 따른 설명회 열려 ... - 절충교역 및 국방과학 기술관리 -

절충 교역 업무지침 개정과 국방과학 기술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설명회가 4월 7일 국방부 관계관과 방산업체 임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防振會 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절충교역

- 적용원칙 : 5백만불 이상
- 교역비율 : 30% 이상
- (직접절충교역 위주)
- 자료제출 : 5개년 중기계획서 기준
- 절충교역 제외 가능 대상사업 규정
- 국산화율 50% 이상 - 제외 가능
- 방산관련 물자 수출 : 防振會를 통해 수출허가를 받도록 절차 개정
- 절충교역 의무액 초과분 轉用 인정

* 국방과학 기술관리

- 국방과학기술 심의위원회 운영
- 국방과학기술 평가위원회 운영
- 국방기술정보본부(國科研) 운영
- 모든 기술 관련자료의 전산화 추진

三星電子, 정보통신부문 協業단지 조성

三星電子 정보통신부문은 통신업계에서는 처음으로 4월 10일 경북 선산에서 통신관련 12개사를 위한 협업단지 합동기공식을 가졌다. 이 협업단지는 총 1만 8천여평에 7개 삼성 협력사와 5개 기타회사가 입주할 예정인데, 오는 10월에 완공된다.



서울 엔지니어링이 제 1회 「중소기업 기술혁신상」을 수상하였다.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吳世哲** 사장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술은 거의가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연구노력의 축적과 반복되는 훈련으로 이루어진 고도의 종합산물』임을 강조하면서, 자체적인 기술인력 양성을 역설하였다



서울엔지니어링, 공업진흥청 「기술혁신賞」 受賞

서울 엔지니어링이 공업진흥청과 중앙 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제정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상」의 제1회 수상업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첨단 기술의 고로용(高爐用) 란스노즐

서울엔지니어링의 주요 발자취

年月	주요(기술개발) 발자취
1968. 11.	서울엔지니어링 창립
1973.	풍구, 냉각반, 제강용 란스 국산화 착수
1975.	제철소용 순동주조 기술도입 계약 체결
1978.	터보 임페라 개발 착수
1980.	순동주조 첫 시제품 납품
1983.	순동주조 일부 양산(受注)
1984.	적자 도산(위기)
1986.	터보임페라 개발 성공(현재 양산)
1987.	흑자 전환, 순동주조 기술도입 재개
1987.	해외기술연수 시행
현재	풍구, 냉각반 국산화(50~60%)
	제강용 란스 노즐 국산화(100%)

이번 수상은 고로용(高爐用) 란스노즐 등의 국산화에 따른 것으로, 17년여의 기술개발 노력에 대한 중간평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엔지니어링은 지난 73년부터 제철소 고로용 란스노즐과 풍구 및 냉각반 등의 자체 개발에 착수하여, 란스노즐은 1백% 국산화를 이루었으며, 풍구와 냉각반은 앞으로 3~4년 이내에 완전 국산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부품들은 고로의 핵심부품들로서,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며, 세계적으로도 10여개사만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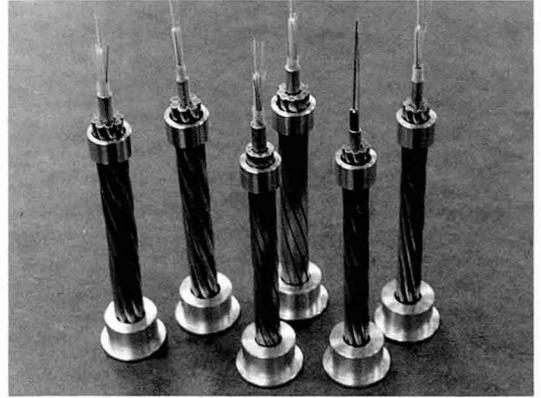
금성전선, 첨단 光통신 케이블 개발

금성전선 電線사업부문이 국내 처음으로 저손실 1.55 μ m 파장대 전용 광복합 가공지선(OPGW)을 개발하였다.

이번에 개발한 광복합 가공지선(OPGW)은 1.55 μ m 파장대 전용 OPGW로서, 가공 송전선로(架空送電線路)에서 낙뢰방지를 하는 가공지선(架空支線) 및 광통신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최첨단의 광통신 케이블이다.

금성전선이 국내 최초로 1.55 μ m 파장대 전용 OPGW를 개발함으로써, 기존 1.3 μ m 파장대 전용 OPGW(1986년 금성전선 국내 최초 개발)의 문제점이었던 장거리 無중계 전송(80km 이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연간 약 2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얻을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345Kv용 OPGW에도 1.55 μ m 파장대 전용 OPGW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항공, 정밀부품 조립용 로봇 新모델 개발

삼성항공 이 최근 외부배선이 필요없는 고속, 염가형 스카라 로봇(사진 ▼)를 개발 완료하고, 시판에 들어갔다.



지난 '91년 5월부터 '92년 4월까지 11개월 동안 3억을 투자하여 개발에 성공한 고속형 스카라 로봇(모델명 : SSR 시리즈)는 1축과 2축의 로봇팔 합성속도가 초당 5.6미터에 이르며, ± 0.03 MM의 고정도 위치반복도를 보유하고 있어, 기존 로봇에 비해 성능이 20%나 뛰어나다.

특히 스카라 로봇은 전자부품 조립라인을 비롯하여 소형 정밀부품 조립라인등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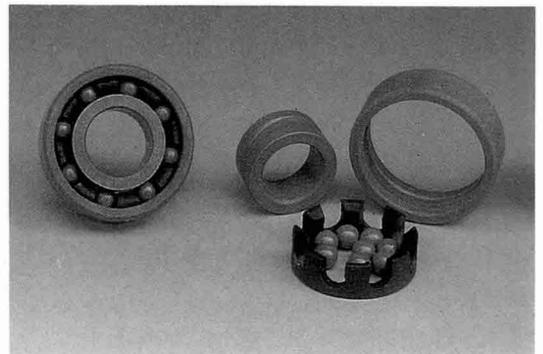
이 로봇은 기억용량 2천2백10포인트, 원활한 가감속 기능, 원형 작업기능이 있고, 총 96점의 외부 입, 출력 연결이 가능한 자체개발된 컨트롤러와의 호환사용으로, 기존 설치라인의 커다란 변경없이 작업조건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구비하고 있어, 사용하는 업체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한국종합기계, 첨단 세라믹 베어링 개발

한국종합기계 가 국내 처음으로 첨단소재인 세라믹 베어링을 개발, 6월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

이 세라믹 베어링은 질화규소 소재를 이용, 고온 및 급저온·마찰에 내성이 강해 윤활유가 필요없는 것이 특징이다.

항공기터빈, 고성능 내연기관, 원자로, 반도체 제조설비 등 첨단 정밀분야에 사용된다.



임진왜란 戰勝 4 백년 ... 거북선 찾기 본격화



해군 바지선을 개조한 발굴작업 母船



탐사장비와 잠수장비를 적재한 탐사정

임진왜란 戰勝 4백주년을 맞아 忠武公 해전유물 발굴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충무공 해전유물 발굴단(단장 黃東煥 해군 대령)은 4월 27일 최근 탐사에서 거북선일 가능성이 있는 이상 물체 6개가 확인되고, 화살촉·선체목편·도자기 등 51점이 발굴됐다고 밝혔다.

지난 89년 4월 盧泰愚 대통령의 지시로 그 해 8월 발족된 충무공 해전유물 발굴단이 진해 해군사관학교에 창설된 이후, 해군은 심해 잠수요원 8백16명과 탐사정·소해함·시추장비 등을 투입해 탐사작업을 벌인 결과, 거북선이 매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12개 해역(1백87km²) 가운데 30%인 44.5km²에 대한 정밀탐사를 완료했다.

현대중공업 거북선연구회 - 거북선 원형대로 復元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총포 발사가 가능한 거북선 모형(사진▶)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다.

現代중공업 사원들로 구성된 거북선연구회(회장 閔庚彩·건조2부)는 실제크기의 6분의 1로 축소한 모형거북선을 제작, 충무공탄신 4백47주년 기념일인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현대중공업 전시실에서 전시한다.

길이 5.74m, 폭 1.72m, 높이 3.7m인 이 모형거북선은 지금까지 복원제작된 5척의 거북선과는 달리, 용머리로 포를 쏠수있도록 45도 치켜든 형태로 되어 있다.

연구회는 앞으로 보완작업을 거쳐 현대중공업 선박해양연구소에서 속도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가 좋으면, 항해도 할수있는 실제크기의 거북선을 건조할 계획이다.



금성정밀 安致瀾 사장 軍 부대 방문

— 고객의 소리 청취 위해 육군 태풍부대 찾아 ...

업체 의 최고경영자가 自社の 장비운 용실태 확인과 현장의 소리 청취 를 위해 일선부대를 직접 방문한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安致瀾 금성정밀 社長은 4월 29일 自社の 유무선 통신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육군 태풍 부대(부대장 이재관)를 찾아 순회서비스 현 장을 둘러보면서, 고객의 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부대요원들과의 자리에서 安致瀾 사 장은 『국내 방산업체가 행하고 있는 기존의 事後(아프터)서비스 개념을 事前서비스로 확 대, 발전시켜 기동성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 軍장비의 원활한 운용과 유지능력 향상에 더 욱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軍을 주 고객층으로 하는 금성정밀의 이리 한 능동적이고 참신한 경영의지의 실천은 업 계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의 변화 에 따른 국내업체의 적극적인 자구책 강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泰)



금성정밀 安致瀾 사장은 고객의 소리 청취와 서비스 현장 확인을 위해 일선 부대를 찾았다



8개 장비 40개 지역을 대상으로한 순회서비스

삼성항공, 美 국제 공정제어(PLC)展 출전



三星航空이 4월 7일부터 9일 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國際 공정제어기(PLC)展 (IPC쇼)에 참가하여, 국산제품의 우수성 과시와 함께 PLC수출의 길을 열었다

이어 삼성항공은 전시 종료후 현재까지 이탈리아의 아노코사와 유럽 판매를 위해 5백만불 상당의 수출상담을 추진중이며, 브라질의 시스테마社, 필리핀의 스타콤社, 캐나다의 아이디얼社등과 현재 총 2천5백만불 상당의 PLC수출 상담을 진행중에 있다

주변안보위협이 변화와 함께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해 정보수집능력의 강화가 시대적 과제로 부상되고 있는데, 제2회 조기경보/전장감시 심포지엄이 4월 24일 國科研 대강당에서 열렸다. 조남태 부장(국과연)은 軍 전력증강 목표에 부합하는 조기경보/전장감시체계를 분야별로 3가지로 구분, 최소한의 소요 사업명과 추정예산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제2회 조기경보/전장감시 심포지엄 개최

주변 안보위협이 변화와 함께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해 정보수집능력의 강화가 시대적 과제로 부상되고 있는데, 제2회 조기경보/전장감시 심포지엄이 4월 24일 김학욱 國科研 所長과 정보본부 유정갑 少將 등 3백50여명의 관련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과학연구소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학욱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우리 민족의 국난은 대부분 적에 대한 군사정보의 부족에 의해 적에게 기습을 제공하였다』고 강조하면서, 현대전에서 조기경보/전장감시체계의 중요성과 한국군 독자적인 체계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어 이양호 정보본부장은 기초연설(유정갑 소장 대독)에서 국민의 전쟁부담을 극소화할수 있는 정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뒤, 주한미군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조기경보/전장감시 능력을 독자적으로 획득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10개 관련체계에 대한 국과연의 연구결과를 중장기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조남태 부장(국과연)은 1993년 부터 2012년까지 5년씩으로 4단계로 나누어, 軍 전력증강 목표에 부합하는 조기경보/전장감시체계를 분야별로 해외 도입, 기술도입 생산, 국내 연구개발등 3가지로 구분하여, 최소한의 소요 사업명과 추정예산을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보전력 건설방안에 대하여 관련 軍과 방산업체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의 지식과 경험의 수렴없이 독자적 체계구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호 이해하게 된 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주변 안보위협이 변화와 함께 조기경보 및 전장감시 등 정보수집능력의 강화가 절실한 현 시점에서, 제2회 조기경보/전장감시 심포지엄이 4월 24일 國科研에서 열렸습니다. 발표된 내용중 일부(4편)를 발췌, 개작하여 소개합니다(pp15~29). 誌面과 保安관계상 많은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게재하게 되었음을 諒知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